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
언론이 주목하는 문선명·한학자 총재



KBS SBS TV조선 MBN CHANNEL 月刊朝鮮 新東坡 월간중앙
주간조선 WOMAN DONGA 연합뉴스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NEWSIS 세계일보 전국매일신문 광주매일신문 경북도민일보 경북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
언론이 주목하는 문선명·한학자 총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맞아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치열한 활동을 펼쳐나왔던 최근 활동들을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들을 담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역할을 하는 언론이
이 시대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동한 K-종교(Religion)의 원조로
70주년을 넘어 창립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글로벌 종교로 중단없는 전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One Family Under God!”

가정연합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자녀된 인간이 위하는 삶 속에 참된 부부, 참된 가정을 이루고

그 기반을 종족 · 민족 · 국가 · 세계로 확대하여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사회인

‘천일국(天—國)’을 실현하고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류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말씀선집 23-317

문선명 · 한학자 총재



남북통일을 위한 실천 Peace Starts with Me

가정연합은 남북통일과 평화세계 건설을 위해
세계 정상, 194개국 지도자들과 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사랑하는 화합과 평화가 가득한 맑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상,
초종교 · 초국가 · 초인종적 차원의
신국가(神國家) · 신세계(神世界) 안착을 위해 더 올곧게 나아가겠습니다."



특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비전 2025’ “갈등과 미움 청산하고, 분쟁과 전쟁 추방하자”

- 다문화정책 세미나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 방안 논의
- 60개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100쌍 국제합동결혼식
- 지속 가능한 평화·세계시민 행복공동체 비전 공유
- 한일 해저터널 건설 위한 피스로드 포럼도 개최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0.72명, 올해는 0.6명대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인 남녀 둘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더라도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둘이 만나 하나의 아이를 낳는 합계출산율 1.0명이라 하더라도 미래 인구는 단순 수치로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낮은 현재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



2024 효정 천주축복식에서 신랑신부에게 성수 의식하는 한학자 총재. 가정연합

가 소멸'을 걱정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4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다문화정책이 한국 사회가 현재 처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다문화평화연합이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문화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가 그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가정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이 현재 처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다문화가정, 저출산 문제 해결에 청신호

손병호 한국다문화평화연합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가 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 저출산,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희망의 빛을 던져줌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한국회장은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한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일찍이 가정연합이 실천해 온 국제축복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을 넘어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견인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 오정아 세종사회정책연구소 박사는 “이민자 가족 출산율이 원주민 가족보다 높은 프랑스와 다른 선진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다문화 부부의 성장 지원뿐 아니라 그 자녀가 한국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실태와 가족 결속도 강화 방안 연구’의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명희 중원대 교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에 대한 접근 방법 패러다임 전환과 MZ세대를 위한 가족문화를 재조명했다.

4월 22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4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정책지원 세미나. 가정연합

는 전주평화포럼(UPF) 주최로 ‘종교화합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2024 국제지도자회의(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ILC)’가 열렸다. ILC는 UPF가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실현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세계적 지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물론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수많은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함께하면서 평화·통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UPF 주최 2024 국제지도자회의 개최

이날 행사에는 양창식 UPF 세계의장을 비롯해 에드워드 바넷 주교, 요하네스 은당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평의회(ACCZ) 대주교,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문연아 선학학원 이사장,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협회장, 황선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의장, 에크낫 다칼 네팔 연방의회 하원의원을 비롯해 한국 종단 지도자들과 미국 기독교 성직자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을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창식 UPF 의장은 대회사에서 “내년이면 한반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지만 광복과 해방의 진정한 완성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라며 “과거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에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하나 돼 앞장섰던 것처럼 통일운동의 선두에도 초종교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항구적 평화세계로서 신통일세계의 출발점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부터”라며 “한반도에서부터 제시된 상생과 공존, 화합과 번영의 참된 평화 비전이 사회통합과 한반도 통일은 물론 장차 평화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상필 UPF 신통일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대회사, 축사에 이어 평화공연, 기조연설, 통일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앞으로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력과 깊이 있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면서 “진심으로 본 대회가 전 세계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세계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PF 관계자는 “종교화합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치러진 ILC 2024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는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장이 됐다”며 “세계지도자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화합과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 개최식, 가정연합

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하네스 은당가 대주교는 기조연설에서 “비록 각 종교가 신에 대한 다른 이름과 다른 방식으로 신을 섬긴다 해도 종교의 중심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특정 인종, 국가, 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화합이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정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면서 “폭력과 가난, 부도덕, 가정의 붕괴를 끝내고, 모든 인류를 위해 지속적인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한일해저터널 공론화 위한 피스로드 포럼

황선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평화는 인간의 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의 비전은 세계시민 행복공동체”라면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으로는 하나님주의 가치관,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 인공지능 AI와 사람의 공생공존 파트너십, 남북통일을 통한 신통일한국 건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로 세계시민이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평화운동을 실천해 ‘세계시민 행복공동체’의 비전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가정연합 관계자는 “비전 2025’는 창시자 한학자 총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랑과 평화, 화합의 한마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갈등과 미움을 청산하고, 분쟁과 전쟁을 추방하며, 가난과 절망을 씻어내 지구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는 ‘2024 한일 피스로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세계피스로드재단이 한일해저터

널을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한일 협력과 기술의 통로, 한일해저터널 건설 계획’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러시아 대사를 지낸 정태익 피스로드포럼 회장의 개회사와 양창식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 환영사, 주일대사 출신의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의 축사, 공학박사인 다케우치 유우조 국제하이웨이재단 일한터널기술위원장 강연,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양창식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연사로 나서는 다케우치 위원장은 일본 세이칸터널을 건설한 전문가로 영어 논문 ‘세이칸터널’로 동양인 최초로 미국 토목학회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양 이사장은 또 “국제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으로 시작돼 국가와 민간이 하나 돼 완성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유럽까지 나아가는 인류 평화의 대혁명이 될 것”이라며 “공생·공영·공의의 일대일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해저터널 기본설계를 완성한 다케우치 유우조 위원장은 강연에서 “지형·지질 조사 자료를 재검증함과 동시에 현지답사를 통해 디지털 멀티채널 음파탐사의 해석 데이터를 검토해 신규퇴적층 내에 이수식 쉘드 TBM 공법 적용이 가능한 지층의 존재를 파악했다”며 “그 지층을 가능한 한 얇은 위치에 터널이 통과할 수 있는 남북 2개의 루트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부산(김해)을 기점으로 쓰시마서수도 북쪽에서 쓰시마가미지마·시모지마를 거쳐 이키에 이르는 북쪽 루트와 거제도를 경유해 쓰시마서수도 남쪽에서 쓰시마시모지마를 거쳐 이키에 이르는 남쪽 루트 등 두 루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케우치 위원장은 향후 계획으로 “양 루트의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책정해 공정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동시에 공사 소요원, 수요전력량, 발생토량, 개업 후의 양수비·열차주행에 따른 소비전력량 및 환경영향에 대해 비교 검증해 한층 더 충실한 계획을 책정하기 위해 향후 실시해야 한다”고 조사계획을 제안했다.

총평에서는 이승호 한일터널연구원 이사장(상지대 교수, 전 대한토목학회 회장)과 박성열 UPF 부산광역시 회장(한일터널학 박사)이 나와 한일해저터널 기본설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했다.

2019년 10월 5일 일본 나고야 캐슬호텔에서 한학자 총재는 전 세계 79개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평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나는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동안 76억 인류가 영원하고 영존하신 하늘부모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끌어야 한다”며 자신이 ‘독생녀’임을 선포한 바 있다.

가정연합 관계자는 “한 총재께서 ‘독생녀’를 공식 선포한 이유는 결코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다”며 “‘하늘아버지’ 이름 아래 은폐되었던 ‘하늘어머니’를 ‘독생녀’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정연합은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모실 때 참다운 평화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빼앗고 정복하는 남성 중심 이기적 문명이 아니라 어머니 사랑 같은 ‘위하여 사는 참사랑’에 기반을 둔 이타적 문명 안착을 위해 한 총재가 인류 참부모로서 ‘독생녀’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학자 총재, ‘평화의 어머니’이자 ‘독생녀’ 선포

4월 24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는 국제합동축복 결혼식인 ‘2024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이 개최됐다. 가정연합 측은 “이날 행사에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우크라이나, DR콩고, 코스타리카, 인도, 솔로몬제도 등 세계 60개국에서 2100쌍이 현장 및 쌍방향 온라인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학자 총재는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천지만물을 쌍으로 창조하시고 인간 시조가 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성장 기간을 통해 스스로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지상에서 모든 자녀들이 지상천국 생활을 하다 수명을 다할 때 천상세계에서 함께하려 했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80억 인류가 본래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그날을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앞당기는 축복가정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선남선녀의 참가정 출발을 축하했다.

가정연합 측은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혼 64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24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은 미국성직자협의회(ACLC) 목사 100명과 각계 지도자 및 가정연합 회원 2



2024 효정 천주축복식에서 기념 케이크를 커팅하는 한학자 총재(위)와 2024 효정 천주축복식에 참석한 신랑신부들. 가정연합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사회로 보고기도, 한학자 총재 연설, 요하네스 은당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과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의 축사, 효정문화특별공연, 들러리 및 주례 입장, 성수의식, 성혼문답, 신랑·신부의 예물교환, 성혼선포, 한학자 총재의 축도, 꽃다발 및 예물봉정, 신랑·신부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요하네스 은당가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거룩한 행보인 축복결혼을 올리는 자리에 선남선녀가 동참하는 귀한 날”이라고 축하했다.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도 축사에서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위하여 사는 참사랑의 가치를 평생 동안 실천궁행하심으로 항구적 평화와 인류 행복의 토대를 닦아나왔다”며 “의로운 선각자 및 세계 지도자들과 연대해 이룩하는 평화와 행복의 길, 특히 축복을 통한 참가정운동은 종교와 인종, 국가, 이념 등 모든 장벽을 극복하는 특별한 방안이며, 인류사에 기록돼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위한 초종교 임진각 합심기도회

4월 26일에는 한국종교협의회 주최로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이하 IAPD) 소속 종교인 포함 300여 명이 세계 유일 분단 지역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종교 기도회를 개최했다.

초종교 임진각 기도회에는 미국성직자협의회(이하 ACLC) 공동의장 존 잭슨 목사, 아프리카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은당가 대주교, 한국불교태고종 칠봉사 주지 진원 스님, 한국종교협의회 이현영 회장, UPF 양창식 세계의장, 가정연합 송광석 한국회장,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황선조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영 회장은 “모두가 통일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종교인들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교인들이야 하고, 종교인들이 다시금 희망을 만들어가야 하며, 대한민국은 세계평화를 주도할 민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CLC 공동의장 존 잭슨 목사는 “많은 성직자들이 미국에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다”며 “남과 북이 하나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결의를 담은 기도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요하네스 은당가 대주교는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종파를

초월해 모든 종교인을 하나로 규합하고 있다”며 “세계 모든 종교인이 예수가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홍윤중 한국종교협의회 부회장의 개회 선언, 한국불교태고종 진원 스님의 남북통일 기원문 낭독, 이현영 회장·존 잭슨 목사·요하네스 은당가 대주교의 신통일한국 결의 말씀, 양창식 회장·송광석 한국협회장의 환영사, 황선조 의장의 축사, 통일아리랑 합창, 초종교 종교인이 참여하는 합심기도, 평화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평화의종 타종, 평화행진 등 신통일한국을 위한 평화의식으로 진행됐다.

양창식 회장은 환영사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 아래 공생·공영·공의의 길로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초종교, 초종파 염원과 기도가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참사랑으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통일운동의 횃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송광석 한국회장은 환영사에서 “성령의 불을 활활 태워 북한 동포들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며 “성령의 기도로 남북통일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송 회장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정성이 토대가 돼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남북통일, 하나님을 모시는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활짝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연합 관계자는 “4월 22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리-이그나이트 콘퍼런스에서는 종교인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신통일한국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했다”며 “리-이그나이트 콘퍼런스가 성령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의미를 가졌다면, 이번 임진각 기도회는 불붙은 성령을 북녘 땅으로 보내는 의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종교 합심기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종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 개최



4월 22일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에서 세계 지도자와 각국 종교 지도자들이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종교화합, 저출산, 한일 해저터널 등 논의

- ◎ 한국 종단 지도자들과 미국 기독교 성직자들 포함 700여 명 참석
- ◎ “궁극으로 통하는 길은 한길이고, 모든 종교가 나가는 길도 한길”(상진 한국 불교태고종 총무원장)
- ◎ “한일 터널이 통과할 수 있는 남북 2개의 루트 선정”(다케우치 유우조 국제하 이웨이재단 일한터널기술위원장)
- ◎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희망의 빛”

김태완 기자 kimchi@chosun.com

매년 개최되는 국제지도자회의(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이하 ILC)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세계적인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를 논의하는 장이다. 그동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캄보디아 전 훈센 수상(현 상원의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수많은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여해왔다. 이 국제회의 뒤에 통일교가 있는데 종교적 색채를 뛰어넘어 평화·통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세계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 이하 UPF)이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가평군의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종교화합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를 열었다.

“모든 종교가 한길. 함께 걸어 한반도 미래 밝히자”

이날 ILC 2024에는 UPF 양창식 세계의장,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선학학원 문연아 이사장, 미국 대은혜가정사역교회 에드워드 바넷 주교, 짐바브웨 사도기독교평의회(ACCZ) 요하네스 은당가 대주교, 네팔 연방의회 에크나트 다칼 하원의원을 비롯해 한국 종단 지도자들과 미국 기독교 성직자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

리카, 남미 등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창식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내년이면 한반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지만, 광복과 해방의 진정한 완성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라고 말했다. “과거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에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하나 돼 앞장섰던 것처럼 통일운동의 선두에 초종교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에서 온 에드워드 바넷 주교는 축사에서 “우리는 영적(靈的)인 지도자로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며,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이며, 바로 이 순간부터 함께 바꾸자”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축사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존재가 하나”라며 “결국 궁극으로 통하는 길은 한길이고, 모든 종교가 나가는 길도 한길이다. 이 길은 어렵고 길지만, 함께 걸어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자”고 울림 있는 말을 했다.

송용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진심으로 이 대회가 전 세계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ILC 2024의 주제로 정해진 ‘종교화합과 한반도 평화통일’은 통일 한



세계피스로드재단은 4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한일 피스로드 포럼'을 열고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을 논의했다.



다케우치 유우조 국제하이웨이재단 일한 터널기술위원장(공학박사)

국의 비전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 화합과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국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하네스 은당가 대주교는 기조연설에서 “비록 종교들이 신(神)에 대한 다른 이름과 다른 방식으로 신을 섬긴다 해도 각 종교의 중심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ILC 2024 준비위 측은 “이번 국제지도자회의가 항구적인 평화 세계 창건이라는 공통적인 희망의 비전을 수립하는 통합의 장을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韓日 해저터널 건설 계획

세계피스로드재단은 4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2024 한일 피

스로드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 간 협력과 기술의 통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정태익 피스로드 포럼 회장(전 러시아 대사)의 개회사, 양창식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 환영사,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전 주일대사)의 축사, 다케우치 유우조 국제하이웨이재단 일한 터널기술위원장(공학박사) 강연, 총평 등 순으로 진행됐다. 피스로드재단은 세계 평화의 한 방안으로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온 국제재단이다.

다케우치 유우조 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의 기본 설계를 최근 완성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본 세이칸터널을 건설한 전문가로 〈세이칸터널〉이라는 논문으로 동양인 최초로 미국 토목학회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케우치 유우조 위원장은 이날 강

연에서 “지형·지질 조사 자료를 재검증함과 동시에 현지 답사와 디지털 멀티채널 음파 탐사의 해석 데이터를 검토해 터널이 통과할 수 있는 남북 2개의 루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김해)을 기점으로 쓰시마가미지마·시모지마~이키에 이르는 북쪽 루트와 거제도를 경유해 쓰시마시모지마~이키에 이르는 남쪽 루트 등 2개 루트다.

다케우치 위원장은 향후 계획으로 “양 루트의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책정해 공사 공정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동시에 공사 소요원, 수요 전력량, 발생 토량, 터널 개통 후 소비 전력량 및 환경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계획”을 제안했다.

다문화 갈등과 저출산 문제 논의

양창식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은 1981년 논의가 시작되었다”면서 “국제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국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완성한다면 동북아를 넘어 유럽까지 나아가는 인류 평화의 대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총평에서는 이승호 한일터널연구원 이사장(상지대 교수, 전 대한토목학회장)과 박성열 UPF 부산광역시회장이 나와 한일 해저터널 기본 설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했다.

2024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망된다. 2022년 0.78명으로 0.7명대에 진입한 뒤 작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명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다문화 가정이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19일 한국다문화평화연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문화 정책 방안 모색’ 세미나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손병호 한국다문화평화연합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가 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 저출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라며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희망의 빛”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다문화 가정은 앞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가정연합이 실천해온 국제축복결혼은 단순히 한 남녀의 만남을 넘어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인류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견인하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담당해왔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종사회정

책연구소 오정아 박사는 이민자 가족의 출산율이 원주민 가족보다 높은 프랑스와 다른 선진국가의 사례를 들며 “다문화 부부의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가 한국 사회 재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명희 중원대 교수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에 대한 접근 방법 패러다임 전환과 MZ 세대를 위한 가족 문화를 재조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에 맞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도입해 가정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결혼을 매개로 한 화려한 인종축제?

가정연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 합동축복결혼식’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시작했다.

이른바 ‘축복결혼식’은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비혼(非婚)주의와 딥크족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가정연합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우크라이나, DR콩고, 코스타리카, 인도, 솔로몬제도 등 세계 60개국에서 2100쌍이 현장 및 쌍방향 온라

이 불임의 시대, 1인 가구가 넘쳐나는 시대에 어디서 이런 청춘남녀들을, 온갖 피부색의 선남선녀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겠는가. 결혼을 매개로 한 화려한 인종축제였다고 한다면 불쾌해할까. 센터 대형 화면 LED 전광판에서는 데이트하는 사진이 소개되었다.

인으로 참석한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인 ‘2024 효정 천주축복식’을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었다. 기자는 직접 현장에 다녀왔다.

청심월드센터는 엄청난 규모의 실내체육관 같았다. 자료를 찾아보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의 8배, 올림픽 체조경기장 2배 규모였다. 잠실야구장 좌석수가 2만5500여 석. 청심월드센터 또한 2만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멀리서 2100쌍을 보았다.

행사 시작 전부터 센터 주변으로 다양한 인종의 신랑·신부들이 보였다.

종교행사인지 결혼행사인지 관찰자로서 헛갈렸지만 이들은 분명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막 기뻐한다기



4월 24일 '2024 효정 전주축복식'에서 신랑·신부에게 한학자 총재가 성수의식을 하고 있다.

보다 차분해 보였다. 얼굴이 반질반질한 청동 놋그릇처럼 밝게 빛나 보였다. 그런데 신랑·신부의 나이가 어려 보였다. 주최 측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20대 초중반으로 보였다. 전부다. 기자의 눈이 뭔가에 혹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온갖 피부색의 선남선녀들

이 불임(不妊)의 시대, 1인 가구가 넘쳐나는 시대에 어디서 이런 청춘남녀들을, 온갖 피부색의 선남선녀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겠는가. 결혼을 매개로 한 화려한 인종축제였다고 한다면 불쾌해할까. 센터 대형 화면 LED 전광판에서는 데이트하는 사진이 소개되었다.

신랑·신부 외에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볼 수 있었다. 결혼예복은 수수했다. 웨딩슈즈도 높지 않았다. 남자는 검은색 양복 내지 턱시도, 여자는

흰색 드레스였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몇몇 신부는 뒤가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었고 어디로 이동할 때 신랑이 두 손으로 드레스를 받쳐안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느 젊은 신랑은 신부와 친구들 앞에서 울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울었다. 큰소리로 울었다. 그러자 신

부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 교제 기간은 얼마나 될까. 그들이 만든 가정은 종교적 결속으로 단단할까. 이런저런 의문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가정연합 측은 “과거엔 전 세계 언론과 AP, 로이터 같은 통신사에서 이 국제결혼식을 생중계하고 언론이 받아 썼다”며 “코로나19로 행사가 중단된 후 내년에 재개할 예정이었다가 올해를 건너뛰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적은 수(2100쌍)지만 축복식을 갖게 되었다”고 귀띔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말씀을 통해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만물을 쌍으로 창조하시고 인간 시조가 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성장기간을 통해 스스로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신랑·신부들이 모두 축복가정이 되기를 축원했다.

새 기록 써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초종교·초국가적 ‘참사랑’으로 세계 평화 리드

2024 국제지도자회의·한일 피스로드 포럼·초종교 임진각 기도회 개최
60개국 2100쌍 참여한 국제합동축복결혼식 ‘2024 효정 천주축복식’ 성료

박세나 월간중앙 기자 <park.sena@joongang.co.kr>



2024 국제지도자회의 (ILC)에서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참석자들의 모습.

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초종교·초국가적 ‘참사랑’으로 평화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4월 22일 세계평화연합(UFPF)은 경기도 가평군 소재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종교화합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창식 UFPF 세계의장, 에드워드 바넷 주교, 요하네스 은당가 짐바브웨 사도 기독교평의회(ACCZ) 대주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문연아 선학학원 이사장,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세계회장, 황선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의장, 에크나트 다칼 네팔 연방의회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국가의 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창식 UFPF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내년이면 한반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지만, 광복과 해방의 진정한 완성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라며 “과거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에 주요 종단 지도자



사진: 세계평화회의원 김기정영남

2024 한일 피스로드 포럼 전경.

들이 하나가 돼 앉았던 것처럼 통일운동의 선두에도 초종교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에서 참석한 에드워드 바넷 대은혜가 정사역교회 주교는 축사에서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이며, 바로 이 순간부터 함께 바꾸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축사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존재가 하늘이라는 깊은 교훈을 받아 결국 궁극으로 통하는 길은 한 길이고, 모든 종교가 나가는 길도 한 길"이라면서 "이 길은 어렵고 길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걸어가며 한반도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앞으로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열어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력과 깊이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진심으로 본 대회가 전 세계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세계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LC 2024의 주제인 '종교 화합과 한반도 평화통일'은 통일한국의 비전을 전 세계인과 공유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장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

화합과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요하네스 은다가 대주교는 기조연설에서 "비록 종교들이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방식으로 신을 섬긴다 해도 각 종교의 중심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특정 인종, 국가, 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황선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비전은 세계 시민 행복공동체"라면서 "하나님주의 가치관,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평화 공존, 인공지능(AI)과 사람의 공생공존 파트너십, 남북통일을 통한 신통일한국 건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세계시민이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평화운동을 실천해 '세계시민 행복공동체'의 비전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ILC는 세계적인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매년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평화를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왔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등 수많은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함께하면서 평화·통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세계시민 행복공동체"를 꿈이 아닌 현실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세계평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해온 세계피스로드재단도 지난 4월 23일 한·일 해저터널을 세계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24 한·일 피스로드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 간 협력과 기술의 통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은 정태익 피스로드 포럼 회장(전 러시아 대사)의 개회사, 양창식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 환영사,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전 주일대사)의 축사, 다케우치 유우조 국제하이웨이재단 일·한터널기술위원장(공학박사) 강연, 총평 등 순으로 진행됐다.

양창식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은 1981년 문선명·한학자 총재에



신통일한국을 위한 초종교 임진각 기도회에서 평화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참석자들.

의해 출범했다”며 “국제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으로 시작돼 국가와 민간이 하나가 돼 완성한다면 동북아를 넘어 유럽까지 나아가는 인류평화의 대혁명이 될 것이며, 공생·공영·공의의 일대일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해저터널의 기본설계를 완성한 다케우치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지형·지질 조사 자료를 재검증함과 동시에 현지답사를 통해 신규퇴적층 내에 이수식 쉼트 TBM 공법 적용이 가능한 지층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 지층을 가능한 얇은 위치에서 터널이 통과할 수 있는 남북 2개의 루트를 선정했다”면서 “그 결과 부산(김해)을 기점으로 쓰시마 서수도 북쪽에서 쓰시마가미지마·시모지마를 거쳐 이키에 이르는 북쪽 루트와 거제도를 경유해 쓰시마 서수도 남쪽에서 쓰시마시모지마를 거쳐 이키에 이르는 남쪽 루트 등 두 루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소요원, 수요전력량, 발생 토량, 개업 후의 양수비·열차주행에 필요한 소비전력량 및 환경영향에 대해 비교 검증해 한층 더 충실한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고 조사 계획을 제안했다. 이후 열린 총평에서는 이승호 한일터널연구원 이사장(상지대 교수, 전 대한토목학회장)과 박성열 UPF 부산

광역시 회장(한일터널학 박사)이 나와 한·일 해저터널 기본설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했다.

신통일한국을 위한 초종교 임진각 기도회

지난 4월 26일에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임진각에서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이하 IAPD) 소속 종교인을 포함한 300여 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종교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초종교 임진각 기도회는 미국성직자협의회(ACLIC) 공동의장 존 잭슨 목사, 아프리카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은당가 대주교, 한국불교태고종 칠봉사 주지 진원스님, 한국종교협의회 이현영 회장, UPF 양창식 세계의장, 가정연합 송광석 한국협회장,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황선조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영 회장은 “모두가 희망이 없다 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교인들이야 하고, 종교인들이 다시금 희망을 만들어가야 하며, 대한민국은 세계평화를 주도할 민족이 돼야 한다”라고 통일을 위한 종교의 자세와 바람을 전했다. ACLIC 공동의장인 존 잭슨 목사는 미국의 성직자들을 대표해 “많은 성직자들이 미국에서부터 이 자리 끝인 자유의 다리를 건너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다"라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의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결의를 담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미국 기독교가 남북통일을 위한 우방임을 강조했다.

요하네스 은당가 대주교는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종교를 초월해 모든 종교인들을 하나로 묶어 규합하고 있다"라며 "평화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예수가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위해 기원했다. 양창식 UPF 의장도 환영사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 아래 공생, 공영, 공의의 길로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오늘 초종교, 초종파적인 염원과 기도가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참사랑으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통일운동의 횃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진각 기도회는 불 붙인 성령을 북녘 땅으로 보내는 의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종교 합심기도의 의미가 담겼다.

한학자 총재, 평화의 어머니이자 독생녀 선포

가정연합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우크라이나, DR콩고, 코스타리카, 인도, 솔로몬제도 등 세계 60개국에서 2100쌍이 현장 및 쌍방향 온라인으

로 참석한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인 '2024 효정 천주축복식'을 지난 4월 24일에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만물을 쌍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시조가 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성장기간을 통해 스스로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기다렸다"라며,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지상에서 모든 자녀들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 수명을 다할 때 천상세계에서 함께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슬람권에서도 종교 지도자, 대통령도 독생녀를 환영해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다"라며, "80억 인류가 본래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그날을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앞당기는 축복가정이 되기를 축원한다"라고 전남선녀의 참가정 출발을 축하했다.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혼 64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24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은 미국성직자협의회(ACLC) 목사 100명과 각계 지도자 및 가정연합 회원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요하네스 은당가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거룩한 행보인 축복결혼을 이 자리에 참석한 전남선녀가 동참하는 귀한 한 날이다"라면서 "사도기독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저도 한학자 총재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이다"라고 전했다.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스님은 축사에서 "의로운 선각자 및 세계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이룩하는 평화와 행복의 길, 특히 축복을 통한 참가정운동은 종교와 인종, 국가, 이념 등 모든 장벽을 극복하는 특별한 방안이며, 인류사에 기록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한학자 총재가 세계를 행복과 평화,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가 됐으며, 종교인, 경제인, 예술인, 교육자, 사회운동가들을 모두 뛰어넘어 진정한 평화의 어머니로서 세계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

2024 효정
천주축복식에서 화촉을
밝히는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권아현 기자 zimc@chosun.com

올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명대도 위협받고 있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로 인해 국가적 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다문화 가정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4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문화 정책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이 실제 저출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따져봤다.

셋째아이부터는 원주민보다 많이 출산

한국다문화평화연합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오정아 세종사회정책연구소 박사는 다문화가정의 다산(多産)에 주목했다. 오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첫째와 둘째 출생률은 원주민과 대동소

이하지만 셋째부터는 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인 부모 중 첫째 아이를 낳은 비중은 58.4%, 둘째 아이까지 낳은 비중은 33.9%였다. 다문화 부모의 경우도 이 수치가 52.9%, 33.2%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셋째 아이를 낳은 비중은 한국인 부모가 7.7%인 반면 다문화 부모는 13.8%로 크게 높았다. 다산 가능성이 다문화가정이 크게 높은 셈이다.

오 박사는 “독일의 경우 2021년 기준 출산율을 보면 원주민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5명인 반면, 이주민 여성은 2.0

"다문화가정이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해법"

올해도 2100쌍 탄생... 가정연합의 국제합동결혼식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지난 4월 24일 경기도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2024 청지인(청부모 효정 원주축복식)에서 한화자 총재(오른쪽둘째)가 합동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에게 성수의를 하고 있다. photo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명으로 원주민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였고 프랑스의 경우도 2017년 기준으로 원주민 여성의 출산율이 1.8명이었던 반면 이민자 여성은 2.6명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이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뿌리 깊이 존재하는 단일민족의식과 외세 침략 경험에서 오는 집단무의식의 경험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협된 인식을 갖게 한다”며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추진되고,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전 국민 인식개선 홍보와 통합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가족응집력 강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주제를 발표한 정명희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140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이주민 인구는 2019년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25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40년에는 이 비율이 약 7%에 달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정명희 교수는 “결혼이민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한국어 교육과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가족응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부현 선문대 교수도 “인구감소 상황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은 증가해 2023년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며 “한국은 2020년 신생아 중 6%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으며 제주도와 전남의 다문화가정 출생 비율이 각각 8.5%

와 7.9%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손병호 한국다문화평화연합 회장은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가 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 저출산,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해결에 희망의 빛을 던져줌으로써 한국의 미래가 있도록 만드는 애국자”라고 말했다.

‘평화의 어머니이자 독생녀’ 선포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탄생에 앞장서온 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라는 평가가 많다. 1961년 36쌍으로 시작한 국제합동결혼식을 통해 매년 수천 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합동결혼식을 통해 탄생한 다문화가정 중 1만가구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한 관계자는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하나님 아래 인류는 한 형제(one family under god)’라는 정신 아래 시작한 국제합동결혼식이 다문화가정의 원조 격”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우크라이나, DR콩고, 코스타리카, 인도, 솔로몬제도 등 세계 60개국 2100쌍이 현장 및 쌍방향 온라인으로 참석한 합동결혼식이 열렸다. ‘2024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이라 명명된 이날 행사에서 한학자 총재는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만물을 쌍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시조가 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성장기간을 통해 스스로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기다렸다”라며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지상에서 모든 자녀들이 지상천국 생활을 하다 수명을 다할 때 천상

세계에서 함께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종교지도자, 대통령도 독생녀를 환영해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다”라며 “80억 인류가 본래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그날을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앞당기는 축복가정이 되기를 축원한다”라고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성직자협의회(ACLIC) 목사 100명과 각계 지도자 및 가정연합 회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사회로 보고기도, 한학자 총재의 말씀, 요하네스 은당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과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스님의 축사, 효정문화특별공연, 들러리 및 주례 입장, 성수 의식, 성혼문답, 신랑·신부의 예물교환, 성혼선포, 한학자 총재의 축도, 꽃다발 및 예물봉정, 신랑·신부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요하네스 은당가 회장은 축사를 통해 “눈물의 땅 아프리카를 평화와 번영과 행복이 있는 ‘신(神)아프리카’로 만들기 위해 한학자 총재는 종교의 벽, 국경의 벽, 인종의 벽, 이념의 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참사랑만으로 찾아오셨으며 숭고한 헌신적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사도기독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저도 독생녀 한학자 총재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행사인 ‘2024 효정 천주축복식’을 비롯해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 신통일한국을 위한 초종교 기도회, 2024 한반도 평화포럼, 한일 피스로드 포럼, 다문화가정 정책지원 학술세미나, Re-Ignite 2025 콘퍼런스 등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다문화정책 지원 세미나에서 축하하는 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장(왼쪽). 다문화정책 지원 세미나 단체사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문화정책 지원 세미나 개최

2023년 기준 0.72명의 합계출산율은 처참하기만 하다. 저출산 시대를 타개할 방안은 정녕 없을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다문화가정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문영훈 기자

저출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다문화평화연합 주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문화 정책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다문화정책 지원 세미나가 열렸다.

기조연설에서 손병호 한국다문화평화연합 회장은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 저출산,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청신호"라며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희망의 빛을 던져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 애국자"라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다문화 운동의 효율성을 다방면에서 높이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증가가 저출산 해결의 핵심"

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한국 경제 발전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앞서 가정연합이 실천해온 국제축복결혼은 단순히 한 남녀의 만남을 넘어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 인류 화합을 건인하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 사회 내 인식

을 개선하고 다문화 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출산, 다문화와 연관된 발제 순서가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오정아 세종사회정책연구소 박사는 '저출산 고령사회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이민자 가족의 출산율이 원주민 가족보다 높은 프랑스와 다른 선진 국가의 사례를 제시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이 2019~2020년 프랑스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을 이민 1세, 이민 2세, 비이민 여성으로 나눠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각각 2.35명, 1.9명, 1.86명의 수치를 보였다. 오 박사는 "다문화 부부의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가 한국 사회의 재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한 정명희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실태와 가족결속도 강화 방안 연구' 주제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에 대한 접근방법 패러다임 전환과 MZ세대를 위한 가족문화 재조명했다.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140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이주민 인구는 2019년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252만 명으로 증가했고 2040년에는 이 비율이 약 7%에 달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정 교수는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다문화정책 지원 세미나에서 축하하는 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장(왼쪽). 다문화정책 지원 세미나 단체사진.

증가할 전망"이라며 "한국어 교육 등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에 맞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도입해 가정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참사랑의 서약, 60개국 2100쌍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0.7명 선도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국경과 인종,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 남녀가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어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은 가정의 긍정적 영향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4월 24일에는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인 '2024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 결혼식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우크라이나, DR콩고, 코스타리카, 인도, 솔로몬제도 등 세계 60개국 2100쌍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시조가 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성장 기간을 통해 스스로 완성의 자리까지

지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하나님은 지상에서 모든 자녀가 지상천국 생활을 하 다 수명을 다할 때 천상 세계에서 함께하려 했다"고 결혼한 이들을 축복했다.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혼 64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24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은 미국성직자협의회(ACLC) 목사들 100명과 각계 지도자 및 가정연합 회원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예식은 한 총재, 요하네스 은당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과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의 축사, 특별공연, 주례 입장, 성수익식, 성혼문답, 신랑 신부의 예물교환, 성혼선포, 한 총재의 축도, 꽃다발 및 예물 봉정, 신랑 신부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요하네스 은당가 회장은 축사를 통해 "눈물의 땅 아프리카를 평화와 번영과 행복이 있는 '신(神)아프리카'로 만들기 위해 한학자 총재는 종교의 벽, 국경의 벽, 인종의 벽, 이념의 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헌신적 노력을 해왔다"며 "오늘은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들이 거룩한 행보인 축복결혼에 동참하는 귀한 날"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관음종 홍파 스님은 축사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위하여 사는 참사랑의 가치를 평생 동안 실천해 지속적 평화와 인류 행복의 토대를 닦아나왔다"며 "의로운 선각자 및 세계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이룩하는 평화와 행복의 길, 특히 축복을 통한 참가정운동은 종교와 인종, 국가, 이념 등 모든 장벽을 극복하는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4월 24일 본행사인 '2024 효정 천주축복식'을 비롯해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 신통일한국을 위한 초종교 기도회, 2024 한반도 평화포럼, 한일 피스로드 포럼, 다문화가정 정책 지원 학술세미나, Re-Ignite 2025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문선명 총재는 생전에 "생애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은 축복결혼"이라며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결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축복결혼식은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평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61년 36쌍의 축복식부터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주례로서 직접 주관해왔다. 한 총재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조화를 이루며 하늘부모님 아래서 하나가 되는 참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총재 #여성동아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위하여 사는 참사랑의 가치를 평생 동안 실천해 지속적 평화와 인류 행복의 토대를 닦아나왔다. 의로운 선각자 및 세계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이룩하는 평화와 행복의 길, 특히 축복을 통한 참가정운동은 종교와 인종, 국가, 이념 등 모든 장벽을 극복하는 뜻 깊은 일이다”

2024 효정 천주축복식(왼쪽), 2024 효정 천주축복식에서 신랑신부에게 성수익식하는 한학자 총재.



가평에서 2,100쌍 참여한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열려



가평에서 2,100쌍 참여한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열려

60개국 2,100쌍, 오늘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오늘(24일) 경기도 가평의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 60개국 남녀 2,100쌍이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 미국성직자협의회(ACLC) 목사들 100명과 각계 지도자 및 가정연합 회원 2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정연합은 1961년 36쌍의 합동결혼식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합동결혼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본 행사인 '2024 효정 천주축복식'을 비롯해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 2024 한반도 평화포럼 등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2,100쌍 가정연합 합동결혼식



60개국 2,100쌍의 참사랑 서약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옛 통일교)이 어제(24일) 한학자 총재 주례로 2,100쌍이 국제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세계 60개국에서 온 신랑·신부가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회원 2만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효정문화특별공연, 성수의식, 성혼문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정연합은 1961년부터 꾸준히 합동결혼식을 열고 있습니다. [MBN 이상주 기자]

"우리 결혼했어요"... 세계 60개국 2,100쌍 결혼 눈길



히로키·키요미
아이는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찬혁·노여정
오늘 축복받게 됐는데 예쁜 신부와 같이 행복하게 같이 잘 살겠습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 60개국 남녀 2,100쌍의 결혼식에는 미국성직자협의회 목사 100여 명과 각계 지도자 및 가정연합 회원 2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찬혁·노여정

- "오늘 축복받게 됐는데 예쁜 신부와 같이 행복하게 같이 잘 살겠습니다."

연예계 '잉고부부'로 소문난 팝핀현준과 박애리 씨가 무대에 올라 참가정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신랑·신부들을 축복했습니다.

▶ 인터뷰 : 히로키·키요미

- "기분이 매우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이는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합동결혼식 행사는 가정의 긍정적 영향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최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60개국 2100쌍 오늘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24일 경기도 가평의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우크라이나, DR 콩고, 코스타리카, 인도, 솔로몬제도 등 세계 60개국 남녀 2100쌍이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현장과 온라인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미국성직자협의회(ACLIC) 목사들 100명과 각계 지도자 및 가정연합 회원 2만명이 참석했다.

합동결혼식은 들러리 및 주례 입장, 성수의식, 성혼문답, 한학자 총재의 축도, 신랑·신부의 예물교환, 성혼선포, 꽃다발 및 예물봉정, 신랑·신부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인 '2024 효정 천주축복식'을 비롯해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 2024 한반도 평화포럼, 한일 피스로드 포럼, 다문화가정 정책지원 학술세미나, Re-Ignite 2025 콘퍼런스 등 기념행사도 진행됐다.

세계 60개국 2천100쌍이 오늘 동시에 결혼



세계 60개국에 있는 2천100쌍의 예비부부가 오늘 한꺼번에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오늘 오전 9시 경기 가평에 있는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인 '2024 효정 천주축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우크라이나, DR콩고, 코스타리카, 인도, 솔로몬제도 등 세계 60개국을 쌍방향 온라인 연결해서 2천100쌍이 동시에 결혼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성직자협의회(ACLIC) 목사 100명과 각계 지도자와 가정연합 회원 2만 명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가정연합은 1961년 36쌍의 합동결혼식을 시작으로 꾸준히 합동결혼식을 열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

60개국 서 온 2천 100쌍 부부의 연... 가정연합 합동결혼식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은 24일 한학자 총재 주례로 2천100쌍이 국제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60개국에서 온 신랑·신부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가정연합은 1961년 36쌍의 국내 결혼식을 시작으로 꾸준히 합동결혼식을 열어왔다.

2024.04.24 **한국경제**

60개국서 온 2천 100쌍 부부의 연... 가정연합 합동결혼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은 24일 한학자 총재 주례로 2천100쌍이 국제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60개국에서 온 신랑·신부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가정연합은 1961년 36쌍의 국내 결혼식을 시작으로 꾸준히 합동결혼식을 열어왔다.

창립 70주년 가정연합 "축복결혼식, 저출산 극복"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립 70주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가정연합)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가정연합의 축복결혼식이 저출산이라는 국가위기 상황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송광석 회장은 또 "창립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954년 5월 1일 문선명 총재에 의해 설립된 가정연합은 '세계평화와 인류구원'을 화두로 포교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2년 문 총재 별세 후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이끌고 있습니다.

오는 6일에는 한 총재와 송 회장을 비롯해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전국 목회자와 신도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가평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이상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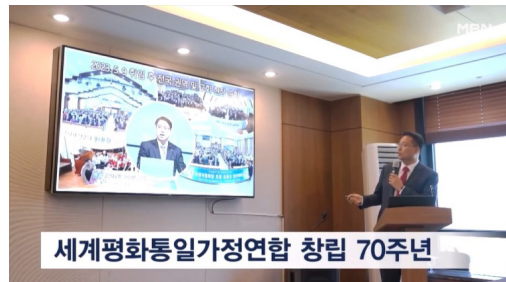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립 70주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립 70주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립 70주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립 70주년

통일교 "해산 안 돼...'기시다 정권 잘못됐다' 일본서 캠페인"

| 창립 70주년 간담회...'합동결혼식, 저출산 해결에 도움'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해산을 시도 중인 것에 대해 가정연합 측은 3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광석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한국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 현금 논란 등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 현지 법원에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처럼 유감을 표명했다.

송 협회장은 일본 내 논란이 "'시간이 되면 알아서 정리되겠지'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갈수록 가정연합을 이상한 길, 어려운 길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응이) 좀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시다 정권의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가두 캠페인을 시작했고 일본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가정연합의 일본 내 대응을 소개했다. 아울러 종교와 관련해 영향력이 있는 세계 각국 인사들이 내달 도쿄에 모여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시도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심포지엄을 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 협회장은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 피고인이 어머니의 거액 현금 때문에 가정연합에 불만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가정연합 관련 행사에 축하한 아베 총리를 저격해 살해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며 이 때문에 가정연합을 해산한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는 일본인들이 현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창시자인 문선명(1920~2012) 총재가 워싱턴타임스를 창간해 로널드 레이건(1911~2004) 행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아쉽다고 반응했다.

간담회는 가정연합의 창립 70주년(6월 6일)을 앞두고 열렸다.

송 협회장은 가정연합이 매년 실시하는 합동결혼식에 참가한 신랑·신부들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가급적 자녀를 많이 낳으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연합 축복결혼식 저출산 위기에 긍정적 영향"



[서울=뉴스시스] 3일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립 70주년 간담회에 참석한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회장 (사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제공)

[서울=뉴스시스] 이수지 기자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회장은 3일 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간담회에서 “한국전쟁 직후 폐허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했듯이, 가정연합도 한국에서 출발해 세계적 종교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가정연합은 함께 걸어왔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위기 상황에서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연합의 축복결혼식은 저출산 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연합은 앞으로 남북통일의 성업을 이루는 데 있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한국에서 출발한 가정연합의 이상이 세계로 확대돼 정착하도록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1954년 5월1일 서울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세대문집에서 창립됐다.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평화와 인류구원'을 화두로 활동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가정연합을 이끄는 한학자 총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연합은 국제지도자들과 타종단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서밋, 신(神)통일한국시대 안착 희망전진대회, 싱크탱크 포럼, 남북통일기원 행복원리세미나, 남북통일기원 천운상속 천심수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연합은 오는 7일 경기 가평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회장, 한미일 3개국 대표들, 전국 목회자, 신도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교 "북한, 한류 열풍 부담 느껴... 4대 세습중"

송광석 한국협회장 창립 70주년 간담회
日정부 해산 요구엔 “대법원까지 갈 것”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은 남한 측의 대북 전단 살포와 한류 열풍, 탈북민이 송금하는 돈이 북한 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요즘 한반도 2개 국가론을 지향하고 있다”며 “한류에 대한 부담과 탈북민이 보내는 돈이 파장을 일으켜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북한 내부의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에 오른 송광석 회장은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통일운동·남북관계 일을 해 왔다”며 “한학자 총재님께서 저를 협회장직에 세운 것은 가정연합이 남북 통일운동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연합에서도 길을 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송 협회장은 “‘시간이 되면 알아서 정리되겠지’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갈수록 가정연합을 이상한 길, 어려운 길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응을 좀 바꾸었다”며 “기시다 정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가두 캠페인을 시작했고 일본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연합은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60년 동안 한반도 형사처벌을 당한 적이 없다”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법인 해산을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가지고 해산하려고 한다.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가정연합의 창립 70주년(6월 6일)을 앞두고 열렸다. 송 회장은 “가정연합 신도의 평균 출산률은 3~4명”이라며 “가정연합의 축복결혼식은 저출산 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이향휘 기자]

"더 큰 책임감으로 남북통일 성업 이룰 것"

■ 송광석 가정연합 회장 간담회

“남북통일의 성업을 이루는 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중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송광석(사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한국 회장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처럼 70년 전 작은 교회에서 출발한 가정연합이 200여 개국에 자리



잡은 글로벌 종교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립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54년 5월 1일 문선명 총재에 의해 설립된 가정연합은 ‘세계평화와 인류구원’을 화두로 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2012년 문 총재 별세 후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이끌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서밋 등 ‘통일’ 관련 행사를 자주 개최한다. 또, 매년 수천 쌍의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을 여는 등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종교로도 각인돼 있다.

이날 송 회장은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때 종족·민족·국가·세계의 평화도 이룩될 수 있다”면서 “가정연합의 축복결혼식이 저출산이라는 국가위기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가정연합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6일 경기 가평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 총재와 송 회장을 비롯해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전국 목회자 및 신도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일보 박동미 기자]

A large group of people, including men and women of various ages, are posed for a group photo in a grand, ornate hall. They are arranged in many rows, filling the lower two-thirds of the frame. Many are wearing colorful traditional Korean clothing (hanbok). In the center of the front row, a man in a red jacket is seated in a yellow motorized chair. Behind the group, a large blue banner with white Korean text hangs across the width of the hall. The text reads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하 창립 70주년 기념식" (7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Ceremony of the World Peace and Unity Conference). The hall features a high ceiling with a grid of recessed lights and several large, ornate chandeliers hanging from the ceiling. The walls are decorated with gold-colored panels and murals.

“미·남 관계를 전환하는 자라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통합과 협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남 세레노는 은리쿠스와 외왕은 “반인종·반문화 중심을 세워 있는 참의로는 세상을 만들기에 다양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두 나라 정세에서도 인종주의와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죽사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



루이스 레돈도
온두라스 의회 의장



사무엘 하데베
하나님게시교회 선지자



마이트리팔라 시리से나
스리랑카 전 대통령



베티 아울 오칸
전 우간다 국회 야당 대표



마리벨 바레토
브라질리아 대학 총장

마리벨 바레토
브라질리아 대학 총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 성료

K-종교의 원조 가정연합, 전 세계 신자들 한국으로 성지순례 이어져
저출산 국가위기 상황에 가정의 가치 강조하는 축복결혼식 긍정적 영향
내년 4월 평화세계의 새로운 랜드마크 '천원궁' 그랜드 오픈 예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지난 1954년 5월 1일에 서울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세대문지에서 창립되어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 70년간 '세계평화와 인류구원'이란 화두를 붙잡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치열한 활동을 펼쳐 나왔다.

70년 전 작은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국내 선교에 머무르지 않고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에 각각 선교사들을 파견해 이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와 남북미에 이르기까지 현재 선교국가는 200여 개국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창종된 가정연합이 세계적인 종단으로 70년 만에 급성장한 것이다.

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한학자 총재는 말씀을 통해 "우주의 중심은 창조주 하늘부모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라며 "하늘의 섭리를 알고 뜻을 아는 가정연합의 식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부모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참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황금기에 최선을 다해 낙오자 없이 최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정연합은 6일(음력 5월 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 한미일 3개국 대표 500여 명을 포함해 전국 목회자 및 신도들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개최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가정연합의 창시자이신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평생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며 "양위분이 상속해 주신 말씀과 가르침은 상처받는 영혼을 위로하고,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해 창립 100주년에 더 화려하고 품격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의 사회로 종단대표 합숙식, 고전론,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기념사, 축전영상, 이수성 전 국무총리·조명철 평안남도 도지사의 축사, 예술봉경, 케이크커팅, 참부모님 말씀, 길의식, 축하공연, 억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시상식에서는 송광석 한국협회장의 말씀, 정년퇴임 공로패 시상식, 33년 장기근속 시상식, 15년 장기근속 시상식이 이어졌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기념사에서 "70년 만에 하늘부모님의 조국 천원궁이 안착되는 놀라운 결실을 이루었다"라며 "인류역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하늘섭리의 진실을 전 세계 인류에게 교육하고 확산하여 하늘주권을 이 땅에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래청년들이 가정연합 70년을 기반으로 뿌리 깊은 거목이 되어 다가올 100주년에 전 세계 인류를 평화하는 퓨어워더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입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영상을 통해 뉴트 강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제 경험을 통해 한학자 총재의 영향력과 문선명 총재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지 알 수 있었으며, 내년에 완공될 천원궁 성전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통합과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루이스 레도드 온두라스 의회 의장은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차별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범적인 유산을 남기셨기에 온두라스 국회에서도 인종이나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을 수호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두 분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두 분의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이 계속해서 꽃피우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으며, 사무엘 하데베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남침례교회 신지지는 "이 기념비적인 순간은 한학자 총재의 영적 지도력과 참가정의 가치를 축진해 세계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력의 증명이며, 지속적으로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조명철 평안남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할 당시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주체사상을 비판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후에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 진정으로 북한동포를 사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려는 참부모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다.

최근 한학자 총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천원이 한반도에 함께한다고 살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연합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국제지도자들과 타종단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서밋, 신(신)통일한국시대 안착 희망전진대회, 싱크탱크 포럼, 남북통일가원 행복원리세미나, 남북통일가원 천문상수 천심수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 만이 아닌 전 세계를 평화의 길로 잇는 피스로드 행사를 끊임 없이 지속적으로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송광석 한국협회장은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천심원과 하나되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교회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 현장주관 원리세미나 및 천심수련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남북통일의 비전을 위해 통일준비국민원위촉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현장에서 축복설명회를 부활시켜 교류 및 만남의 장을 실행해 미혼축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중점 전략을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함께출산율은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저 함께출산율로 인해 국가적 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연합의 국제함동축복결혼식은 '가정의 긍정적 영향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최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는 해외에서 건너온 외래 종교이지만, 가정연합은 한국에서 태동한 K-종교(Religion)이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에 신자를 늘려가는 K-종교의 원조이기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외국인 신자들이 '성지순례' 위해 신앙의 조국인 한국을 직접 찾아오고 있다.

올해에도 유럽과 남미, 중미, 미국, 캐나다, 일본, 아시아, 대만 등 해외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내년 4월에는 평화세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천원궁'을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천원궁은 평화교육의 전당으로서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철학과 활동을 기념하며 다목적 홀, 박물관, 미술관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등으로 구성되며, 천원궁의 중심에 위치한 천원성전()은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늘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성전으로 천지인() 컨셉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전 생애를 거쳐 일관되게 걸어온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삶의 여정이 가정연합 70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연합은 창립 70주년을 넘어 창립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위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글로벌 종교로 중단없는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 성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6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 한·미·일 3개국 대표 500여 명, 전국 목회자 및 신도들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의 사회로 중단대표 합수식, 고천문,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기념사, 축전영상,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의 축사, 예물봉경, 케이크커팅, 참부모님 말씀, 결의식, 축하공연, 억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시상식에서는 송광석 한국협회장의 말씀, 정년퇴임 공로패, 그리고 33년·15년 장기근속 시상식이 이어졌다.

한학자 총재는 말씀을 통해 “우주의 중심은 창조주 하늘부모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하늘의 섭리를 알고 뜻을 아는 가정연합의 식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부모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참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황금기에 최선을 다해 낙오자 없이 최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용천 세계회장은 기념사에서 “70년 만에 하늘부모님의 조국 천일국이 안착되는 놀라운 결실을 이뤘다”면서 “미래청년들이 가정연합 70년을 기반으로 뿌리 깊은 거목이 돼 다가올 100주년에 전 세계 인류를 정화하는 퓨어워터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입하자”고 말했다.

한편 가정연합은 1954년 5월1일에 서울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세대문집에서 창립돼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 70년간 '세계평화와 인류구원'이란 화두를 붙잡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치열한 활동을 펼쳐 나왔다.

/ 박은성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 성료

작은 교회로 출발해 현재 200여개 선교국 둔 글로벌 종교로 성장
K-종교의 원조 가정연합, 전 세계 신자들 한국으로 성지순례 이어져
저출산 국가 위기 상황에 가정의 가치 강조하는 축복 결혼식 긍정적 영향
내년 4월 평화세계의 새로운 랜드마크 '천원궁' 그랜드 오픈 예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6일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 한미일 3개국 대표 500여 명을 포함해 전국 목회자와 신도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HJ천주천보수원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한학자 총재는 말씀을 통해 “우주의 중심은 창조주 하늘부모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라며 “하늘의 섭리를 알고 뜻을 아는 가정연합의 식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부모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참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황금기에 최선을 다해 낙오자 없이 최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가정연합은 1954년 5월 1일에 서울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세대문집에서 창립되어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 70년간 ‘세계평화와 인류구원’이란 화두를 불철갑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치열한 활동을 펼쳐 나왔다.

둘째로 보면 70년 전 작은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국내 선교에 머무르지 않고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에 각각 선교사들을 파견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와 남북미에 이르기까지 현재 선교국가 200여 개국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창조된 가정연합이 세계적인 중산으로 70년 만에 급성장한 것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가정연합의 창시자이신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며 “양위분이 상속에 주신 말씀과 가르침은 성서받는 영혼을 위로하고,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해 창립 100주년에는 더 화려하고 품격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면서 70주년 행사를 축하했다.

행사는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의 사회로 중대대표 합숙사, 고천문,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기념사, 축전영상, 이수성 전 국무총리·조명철 평안남도 도지사의 축사, 예술봉정, 케이크커팅, 참부모님 말씀, 결의식, 축하공연, 억만세삼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시상식에서는 송광석 한국협회장의 말씀, 정년퇴임 공로배 시상식, 33년 장기근속 시상식, 15년 장기근속 시상식이 이어졌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기념사에서 “70년 만에 하늘부모님의 조국 천원국이 안착되는 놀라운 결실을 이루었다”라며 “인류역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하늘섭리의 진실을 전 세계 인류에게 교육하고 확산하여 하늘주권을 이 땅에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래청년들이 가정연합 70년을 기반으로 뿌리 깊은 거목이 되어 다가올 100주년에 전 세계 인류를 평화하는 푸여위터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입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영상을 통해 뉴트 킹크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제 경험을 통해 한학자 총재의 영향력과 문선명 총재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으며, 내년에 완공될 천원궁 성전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통합과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루이스 레돈도 온두라스 의회 의장은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차별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범적인 유산을 남기셨기에 온두라스 국회에서도 인종이나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을 수호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마이트리팔라 시라세나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두 분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두 분의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이 계속해서 꽃피우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으며, 사무엘 하데베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님게시교회 신지자는 “이 기념비적인 순간은 한학자 총재의 영적 지도력과 참가정의 가치를 촉진해 세계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력의 증명이며, 지속적으로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조명철 평안남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할 당시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주체사상을 비판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후에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 진정으로 북한동포를 사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려는 참부모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양위분의 뜻을 잊지 않고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시대가 열릴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학자 총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천원이 한반도에 함께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연합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연대에 국제지도자들과 타종단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서밋, 신(神)통일한국시대 안착 화랑전진대회, 싱크탱크 포럼, 남북통일기원 행복관리세미나, 남북통일기원 천문상속 천심수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만이 아닌 전 세계를 평화의 길로 잇는 피스로드 행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송광석 한국협회장은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천심원과 하나되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교회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 현장주관 원리세미나 및 천심수련을 강화해 갈 것”이며, 또한 “남북통일의 비전을 위해 통일준비국민위원 위촉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현장에서 축복설명회를 부활시켜 교류 및 만남의 장을 실행해 미혼축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중점 전략을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로 인해 국가적 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연합의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은 ‘가정의 긍정적 영향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최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는 해외에서 건너온 외래 종교이지만, 가정연합은 한국에서 태동한 K-종교(Religion)이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에 신자를 늘려가는 K-종교의 원조이기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외국인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위해 신앙의 조국인 한국을 직접 찾아오고 있다. 올해에도 유럽과 남미, 중미, 미국, 캐나다, 일본, 아시아, 대만 등 해외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내년 4월에는 평화세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천원궁’을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천원궁은 평화교육의 전당으로서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철학과 활동을 기념하며 다목적 홀, 박물관, 미술관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등으로 구성된다. 천원궁의 중심에 위치한 천일성전(天一聖殿)은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늘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성전으로 천지인(天地人) 콘셉트로 건축될 예정이다.

전 생애를 거쳐 일관되게 걸어온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삶의 여정이 가정연합 70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연합은 창립 70주년을 넘어 창립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위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글로벌 종교로 중단없는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임택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 성료

작은 교회로 출발해 현재 200여개 선교국·톤·글로벌 종교로 성장
K-종교의 원조 가정연합, 전세계 신자들이 한국으로 성지순례 이어져
저출산·가위기 상황에 가정의 가치 강조하는 축복 결혼식 긍정적 영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1954년 5월 1일에 서울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세대문집에서 창립되어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 70년간 '세계 평화와 인류구원'이란 화두를 붙잡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치열한 활동을 펼쳐 나왔다.

돌이켜 보면 70년 전 작은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국내 선교에 머무르지 않고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에 각각 선교사들을 파견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와 남북미에 이르기까지 현재 선교국가는 200여 개국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창종된 가정연합이 세계적인 중단으로 70년 만에 급성장한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 한미일 3개국 대표 500여 명을 포함해 전국 목회자 및 신도들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광석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의 사회로 중단대표 합수식, 고천문,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기념사, 축전영상, 이수성 전 국무총리·조명철 평안남도 도지사의 축사, 예술봉정, 케이크커팅, 참부모님 말씀, 결의식, 축하공연, 역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시상식에서는 송광석 한국협회장의 인사말, 정년퇴임 공로패 시상식, 33년 장기근속 시상식, 15년 장기근속 시상식이 이어졌다.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우주의 중심은 창조주 하늘부모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라며 “하늘의 섭리를 알고 뜻을 아는 가정연합의 식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부모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참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황금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 없이 최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기념사에서 “70년 만에 하늘부모님의 조국 천일국이 안착되는 놀라운 결실을 이뤘다”며 “인류역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하늘섭리의 진실을 전 세계 인류에게 교육하고 확산해 하늘주권을 이 땅에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래청년들이 가정연합 70년을 기반으로 뿌리 깊은 거목이 돼 다가올 100주년에 전 세계 인류를 평화롭게 푸어워터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입하자”고 말했다.



최근 한학자 총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천운이 한반도에 함께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연합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국제지도자들과 타종단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서밋, 신통일한국시대 안착 희망전진대회, 싱크탱크 포럼, 남북통일기원 행복원리세미나, 남북통일기원 천운상속 천심수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 만이 아닌 전 세계를 평화의 길로 잇는 피스로드 행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송광석 한국협회장은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천심원과 하나되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 현장주과 원리세미나 및 천심수련을 강화해 갈 것”이며, 또한 “남북통일의 비전을 위해 통일준비국민원 위촉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현장에서 축복설명을 부활시켜 교류 및 만남의 장을 실행해 미혼축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중점 전략을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로 인해 국가적 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연합의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은 ‘가정의 긍정적 영향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최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는 해외에서 건너온 외래 종교이지만, 가정연합은 한국에서 태동한 K-종교(Religion)이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에 신자를 늘려가는 K-종교의 원조이기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외국인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위해 신앙의 조국인 한국을 직접 찾아오고 있다. 올해에도 유럽과 남미, 중미, 미국, 캐나다, 일본, 아시아, 대만 등 해외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내년 4월에는 평화세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천원궁’을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천원궁은 평화교육의 전당으로서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철학과 활동을 기념하며 다목적 홀, 박물관, 미술관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등으로 구성된다. 천원궁의 중심에 위치한 천일성전은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늘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성전으로 천지인 컨셉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가정연합 관계자는 “전 생애를 거쳐 일관되게 걸어온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삶의 여정이 가정연합 70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연합은 창립 70주년을 넘어 창립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위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글로벌 종교로 중단없는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2천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다시 오마’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어린양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기다렸던 하늘의 신부,
인류역사에 처음 오시는 ‘독생녀’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3년 생애 동안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양 혼인잔치를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잔치가 바로 일찍이 잃어버린 독생자 독생녀를 신랑신부로 맺어 주어
참부모로 세우시는 성스러운 축복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독생녀만이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어린양 혼인잔치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는 6천년 만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에서 발췌



「한학자 총재 자서전」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북미와 중동까지 가장 낮고 구석진 곳의
모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전한 사랑의 메시지

김영사 / 한학자 지음 / 16,000원

초림 독생녀 한학자 총재